

참옷나무 추출물 건강식품 산업화 가속도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알레르기 유발물질 제거 기술 개발

곡성 참옷농장과 기술이전 계약 옷나무 제품 개발 본격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참옷나무 추출물이 건강식품과 식품첨가물 등으로 산업화 될 전망이다.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옷나무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전통 가공·처리 방법을 개발해 곡성 참옷농장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22일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전남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지원하는 '전남지역 특화 맞춤형 기술 이전사업'으로, 3년 동안 기술 이전

지도에 나서 옷나무 제품 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허기술(특허 10-2015-0011337)은 옷나무의 피부염 유발 독성물질 제거 법제 방법 및 이에 따라 제조된 옷나무 식품 첨가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이 기술을 곡성 참옷농원에 이전한 것은 이 기업이 지난해 8월 옷나무 제품을 개발하면서 특유의 옷 성분검사를 해주는 기관을 찾지 못해 애로 임업상담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옷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약용식물로, 옷에 민감한 사람은 살짝 만지거나 소량만 먹어도 온몸에 발진이 돌고 진물이 나면서 고생한다. 옷 겉집에 있는 '우루시올(urushiol)이라는 성분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독성물질이 다른 한편으로는 면역 안정 효과를 가지고 있다. 벌독이나 뱀독같이 현재 난치성질환 치료에 효과를 보이는 것처럼 옷나무의 '우루시올'도 독이자 효능 물질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이번 기술 이전 연구의 결과다.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소득 수증으로 서 옷나무를 식품 첨가물로 산업화하기 위해 우루시올 시험법 및 기준 규격(식약처

식품공전)에 따라 '법제 전후 옷나무 추출물의 영양 및 생리활성성분의 변화 연구'를 기술이전 후속 연구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화식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은 "민선 6기 브랜디사책인 '숲 속의 전남'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소득사업과 잘 연계해 나가겠다"며 "돈이 되는 소득 숲에 적합한 약용, 식용, 공업용 등 단기 소득 수증에 대한 전방위적 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농가에 기술이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최근 63건의 산업재산권을 확보해 16개 기술을 20개 업체에 기술이전했다. /윤현석기자chadol@



귀농·귀촌, 곡성으로 오세요

곡성사랑회 부산역서 귀성객 상대 홍보활동

귀농·귀촌자 모임인 곡성사랑회가 지난 17일 부산역에서 설 귀성객을 상대로 도시민유치 홍보 행사를 가졌다.(사진)

곡성사랑회가 부산역에서 도시민 유치에 나선 까닭은 지난해 곡성지역 귀농자 157명 가운데 35명이 경상도 지역에서 이주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원들은 설 귀성객들에게 따뜻한 음료·간식을 제공하는 한편 홍보전단을 함께 배포했다.

곡성사랑회 임재용 회장은 "귀농·귀촌 홍보를 위해 타 지역에서 곡성을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귀농 성공담과 경

험을 전달하는 등 도시민 유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민선 6기 3대 공약사항 추진을 위해 귀농·귀촌팀 조직을 신설하는 등 귀농·귀촌자를 위해 상담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귀농 원스톱 행정적 서비스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도 대도시 박람회 참석 등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펼쳐 도시민유치에 앞장 설 계획이다. 문의(061-360-7471)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전국 생산량 40%...고흥미역 본격 채취

올 305어가 11만2000t 생산 900억원 소득 예상

전국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고흥산 미역 채취가 본격화됐다.

고흥군은 "올해 305 어가가 2952ha에서 11만2000t의 미역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초와 염장미역, 건미역 등 가공제품을 포함해 연간 90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해황(海況)이 양호해 고품질 미역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은 지난해부터 군수 공약사업으로 어업인들의 인력난 해소와 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미역포자 이양기를 10대 보급했고, 올해도 1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미역양식에 필요한 생산기반 시설인 개량부자와 인공침자 등 보급에 1억8700만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1차 산업에서 2차 가공까지 생산할 수 있는 가공시설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6개소에 50억6000만원을 지원해 고흥미역 산업규모를 키워 나갈 방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웰빙 바람과 함께 미역의 효능·효과에 대한 입소문이 퍼져 미역을 즐겨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거름도 해역 등 청정 해역에서 미역 수확작업이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고흥군 거름도 해역 등지에서 미역채취가 지난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올해 고흥산 미역 생산량은 11만2000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취한 미역을 건조하고 있는 거름도 주민들. <광주일보 자료사진>

보성산림조합, 조합장 선거 경쟁후보 싹 자르기?

오는 3월 1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보성군산림조합이 출마 예정자의 출마자격 여부를 묻는 민사소송에 과잉대응해 물의를 빚었다.

보성군 산림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김보씨는 지난 22일 보성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에 임정 중립을 지켜야 할 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과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선거 중립의 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조합 측에 출마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자격 여부를 확

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보성군산림조합 출자 115좌와 전신인 보성군 임업협동조합 출자 129좌 등 총출자 244좌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선거공고일인 2015년 2월 19일 2년 이전인 2013년 2월 18일까지 조합출자금 200좌에 부족해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며 조합장 출마자격이 없다"고 답했다. 조합측은 이전 임업협동조합 당시 취득한 129좌(1좌 3000원)에 대해 현 산림조합법을 적용해 1좌당 금액을 5000원으로 계산하면 193좌에 불

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합의 유권 해석에 납득하지 못한 김씨는 다시 지난 2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피선거권 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 지난 17일 "244좌가 인정되며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조합 측은 김씨의 민사소송이 조합장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을 묻는 개인적인 소송인데도 불구하고 조합의 열악한 재정에도 즉시 변호사를 고용해 과도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나섰다.

김씨는 "법원에 피선거권자로서의 자격

피선거권 자격 소송에

변호사 고용 과잉대응

여부를 묻는 민사소송인데도 조합이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까지 유권 해석에 영향을 주는 반론을 펼치는 것은 누가 봐도 경쟁후보자 '싹 자르기'라며 "조합은 동시선거 취지를 바로 인식해 임정 중립을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보성군산림조합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24~25일 김씨의 후보 등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산림조합법에는 '200좌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구례군 '아쿠아 수중운동교실' 지역노인 신청자 모집

구례군은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아쿠아 수중운동교실' 신청자를 모집한다. 구례군은 퇴행성 관절질환과 대사증후군이 있는 지역노인 8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8월까지 40명씩 2기로 나눠 12주(주 2회)동안 아쿠아 수중운동교실을 운영한다.

수중운동은 음악에 맞춰 걷기와 아쿠아 에어로빅, 아쿠아볼을 이용한 유산소 운동 등을 통해 근육통 및 관절염을 완화하고 하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력을 이용한

운동으로 체중에 부담이 없고, 수영을 못해도 보조기구를 이용해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다.

교육 대상자는 관절염 치료 중이거나 대사증후군 요인을 가진 관내 거주 50~70세 주민이며, 신청은 보건의로원 건강증진계 (061-780-2018)로 하면 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신청자가 많을 때는 기준에 맞는 신청자 중 올해 처음으로 신청하는 분을 우선 선발해 많은 주민이 두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성규기자 lsg@



구례군은 '아쿠아 수중운동교실' 참가자를 3월 6일까지 모집한다. 지난해 구례군 '아쿠아 수중운동교실' 모습. <구례군 제공>

상무 Biz Tower

즉시입주가 가능 임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쾌적한 업무환경과 여유로운 주차,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 관리비,
정직한 공용면적 적용으로
입주업체와 함께 동반성장 하겠습니다.

건물구분	권장업종	면적 및 임대료 (3.3㎡당)		관리비 (3.3㎡당)
지상 14층 지하 4층	일반업무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9,000원
1층	제과점, 소매점 금융ATM, 기타	252	75,000원	
2층	사무실	273 / 65	25,000원	
3층	사무실	494	25,000원	
4층	사무실	384	27,000원	
5층	사무실	424	25,000원	
6층	사무실	424	25,000원	
7층	사무실	424	25,000원	
8층	사무실	419	25,000원	
9층	사무실	414	25,000원	
10층	사무실	335	25,000원	
11층	사무실	396	25,000원	
12층	사무실	임대원료		
13층	사무실			
14층	사무실	111	25,000원	

상무비즈타워
(구 남영비즈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로 103 (차평동 1210-4)
임대관리 010-7570-7525
관리실 : 062)381-5551 FAX: 062)384-5551

주월동 한양아파트

▶ 남구 주월동 450 - 2번지 / 1층 / 28평 / 방3개
정남향 / 학군최상 / 신혼부부적합
내부 리모델링 즉시 입주

◆ 매매 1억2000만원
◆ 임대 3000만원/45만원 (5000만원/30만원)

월산동 광전파크빌라

▶ 남구 월산동 110 - 18번지 / 4층 / 20평 / 방2개
신혼부부적합 / 동남향 / 신축 내부개끗
내부 리모델링 / 안정적 수익

◆ 보500/월43(안고가)
◆ 용자 4900만원 ◆ 매가 9500만원

010-8676-1900